



2022년 6월 4일, 모스크바의 일부 파룬궁 수련생들이 비를리오프스키(식물원)에서 파룬따파와 중국 전통문화를 소개하는 행사를 개최했다. 파룬궁의 다섯 가지 공법 시연 외에도 노래와 춤, 요고(腰鼓), 용춤 공연 등이 있었다. 무대 옆에는 탁자와 의자가 설치돼 중국 전통문화를 사랑하는 적잖은 시민들이 현장에서 종이 연꽃 만들기, 중국 한자 쓰기 등을 배웠다.

봉쇄돌파 소프트웨어 받기

컴퓨터 버전: <https://j.mp/fgp88>

안드로이드 VPN: <https://j.mp/fgv88>

안내: 중국산 브라우저로는 위 주소가 열리지 않을 수 있으므로 IE, Edge, Chrome 또는 파이어폭스 등의 브라우저를 권장합니다.

하늘이 내린 큰 복 天賜洪福

화재 속의 기적 | 죽음의 신도 비껴가다 '역병에는 눈이 있다'와 '역병을 피하는 좋은 방법'

제133기



목차



회화 《진언(真言)을 알려주고 복음을 전하다》

권두일문	3	송나라 인종이 전염병을 퇴치한 이야기
길성고조(吉星高照)	4	전염병을 막는 묘책으로 온 집안이 무사하다
	5	신기한 역새 초원
	6	지적장애 아들이 인재가 되다
	8	화재 속의 기적
절체절명에서 살아나다	10	죽음의 신도 비껴가다
	14	4년간 수련을 거쳐 여러 난치병이 완치되다
세상을 이롭게 하다	18	진선인(真·善·忍)을 깨달아 고생 끝에 낙이 오다
	22	파룬따파 세계 홍전(弘傳)
평안을 얻는 길	24	‘역병에는 눈이 있다’와 ‘역병을 피하는 좋은 방법’
	27	자손에게 영향 줄 수 있다며 재판장이 명단서 삭제 간청
아는 것이 복	28	선량한 할머니가 의로움으로 복을 받다
항간여론	30	누가 누구를 먹여 살리는가?
	31	이웃 아주머니 “방송국의 선전이 잘못된 것”

이웃 아주머니, “방송국 선전이 잘못된 것”

【중국 투고】 ‘천안문 분신자살 사건’ 당시 중국 텔레비전 방송의 제멋대로 된 선전으로 많은 사람이 기만당했다. 하지만 이제 일반인들마저 ‘분신자살’ 사기극의 허점을 간파하고 있다.

이웃 아주머니는 진상 자료를 보고 나서 이 일을 다시 이야기하자 태도가 완전히 달라졌다. 아주머니는 “리 선생

님께서서는 아예 살생도 못 하게 하시고 자살도 허락하지 않으셨어. 방송국의 선전이 잘못된 거야!”라고 말했다.

파룬궁 서적에 “연공인은 살생을 해서는 안 된다”, “자살은 죄가 있는 것이다”라고 명시돼 있다. 파룬궁 서적을 읽으면 중공의 거짓말은 자멸할 수밖에 없다. 

천안문 분신자살 거짓 사건에 드러난 뚜렷한 허점

1. 경찰이 소화기를 메고 순찰하는가? ‘분신자살’ 점화 1분도 안 돼 어디서 이렇게 많은 소화기가 왔을까? 경찰이 소화기를 메고 순찰하는가?
2. 돌발 사건에서 화면이 안정적이고 또렷하다
‘분신자살’은 돌발사건이다. CCTV에서 촬영한 화면은 안정적이고 또렷하며 영상은 원경, 근경과 클로즈업까지 갖췄다. 사전 배치가 없이 가능하겠는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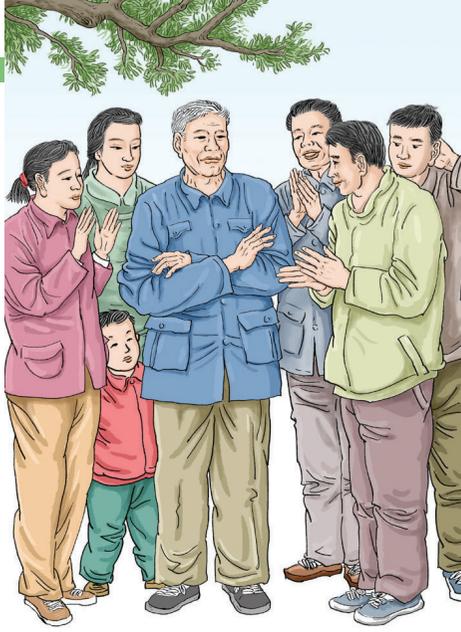
3. 류춘잉은 맞아 죽은 걸까, 화상으로 죽은 걸까?
CCTV의 느린 화면에서 군복 차림의 한 남성이 무거운 물체를 들고 류춘링(刘春玲)의 머리를 내리쳐 그녀가 즉시 쓰러지는 장면이 담겨있다. 류춘잉은 맞아 죽은 걸까, 화상으로 죽은 걸까?

4. 휘발유가 가득 차 있는 플라스틱 사이 다병이 새것처럼 새파랳다
왕진동(王进东)의 옷과 몸(왼쪽 사진)은 모두 불에 탔으나 그의 두 다리 사이에 휘발유가 가득 차 있는 플라스틱 사이다병이 새것처럼 새파랳다.



5. 기관지를 절개하고도 노래를 부를 수 있을까?
CCTV는 류쓰잉(刘思影)이 기관지 절개 수술을 받았다고 했으나 마이크에 대고 노래를 부를 수 있다는 것은 의학 상식에 어긋난다.

누가 누구를 먹여 살리는가?



왜 삼퇴하면 평안을 얻는다고 하는가?

삼퇴는 따지웬(大纪元) 탈당 사이트에 중공의 공산당, 공청단, 소선대 조직에서 탈퇴를 선언하는 것을 말한다. 중공은 여러 차례의 정치 운동으로 8천만 중국인을 비정상적으로 죽였으며 하늘이 그것을 청산할 때 그 구성원은 따라서 재앙을 당하게 될 것이다! 삼퇴한 사람은 중공과 선을 그었기에 그것의 손상품이 되지 않는다. 지금까지 4억 명이 넘는 중국인이 삼퇴해 평안을 얻었다.

삼퇴 방법

1. 무료 삼퇴 전화:
001-416-361-9895 혹은
001-514-342-1023
2. 봉쇄돌파프로그램으로 접속:
tuidang.org
3. 파룬궁 수련생을 찾거나 탈당 자원봉사자의 도움으로 삼퇴할 수 있다.



송나라 인종이 전염병을 퇴치한 이야기

글/ 즈형(智恒)

예로부터 ‘전염병’은 모든 국가에 똑같이 존재했지만 어떤 국가와 민족은 전염병으로 멸망했고 어떤 쪽은 헤쳐나왔다. 아래는 북송(北宋)의 인종(仁宗) 당시 전염병을 물리친 실제 이야기다.

《송사(宋史)》 기록에 의하면 국경 내에서 갑자기 큰 역병이 발생해 수많은 백성이 고통을 당했다. 하지만 황제 인종은 관리를 처벌하지 않았고 예전처럼 태평스러운 가무로 재난을 덮어 감추지도 않았으며, 천자의 용포를 벗어놓고 잠시 정전(正殿)을 떠나 조례를 받지 않았다. 그는 하늘을 받들고 도를 행하는 천자의 직책에 대해 성실하고 진지한 태도로 부끄러움을 표했고, 음식을 줄였으며, 진심으로 두려워하며 반성했고, 자신의 통치가 사람의 도리에 벗어나거나 하늘의 도리에 부합했는지 살폈다.

수도에 큰 역병이 발생했을 때 인종은 먼저 가난하고 병에 시달리는 사람들을 생각하며 어의에게 명을 내려 맥을 잘 짚는 사람을 찾게 했고, 각 현 관아에 빈민 진료소와 약방을 설치했다.

인종은 궁중 어의에게 전염병을 고치는 처방을 연구하도록 명하고 또 환

관에게 명을 내려 귀한 약재를 꺼내 오게 했다. 당시 인종의 환관 이순거(李舜举)는 ‘통천서(通天犀)’가 진귀한 명약인 것을 알고 황제를 위해 남길 것을 권했다. 뜻밖에도 인종은 조금도 기뻐하지 않고 말했다. “내가 기이한 물건을 귀히 여기고 백성을 천하게 여기는 사람이더냐?” 그리고는 곧 통천서를 부수어 백성을 치료하는 약에 넣게 했다.

백성을 지극히 아끼는 인종의 통치하에 수많은 충신과 재능 있는 관리가 고무되어 어진 정치에 호응했다. 결국 전염병은 점차 사라졌고 수도는 평안을 되찾았다.

하늘은 기현상을 통해 길흉을 나타낸다. 만약 천재와 전염병을 자신의 과오를 반성하는 하나의 거울로 여기고, 덕을 중히 여겨 선을 행한다면 자신이 책임진 범위에서 전염병 기운이 물러나고 바른 기운이 다시 솟아올 것이다.

역사는 후세에 소중한 지혜를 남긴다. 자고이래 사회 예법이 무너지고 도덕이 몰락하면 각종 역병이 나타났다. 내심에서 도덕과 선을 회복해야 신불(神佛)의 보호를 받을 수 있으며 재난을 피하고 미래로 나아갈 수 있다. 



전염병을 막는 묘책으로 온 집안이 무사하다

[중국 투고] 2022년 3월, 코로나 바이러스가 변이 형태로 중국에서 다시 나타나 20여 개 도시에서 기승을 부렸다. 정부 측은 우리 지역에서 매일 감염자 수가 네 자릿수로 급증한다면 도시, 구역, 현성, 농촌을 모두 봉쇄했다. 도시 전체가 죽음의 도시로 변하고, 많은 사람이 공포와 절망에 빠졌다.

우리 가족 수십 명은 이 도시 여러 아파트 단지에 흩어져 살고, 어떤 사람은

고위험지역에 거주하고 있다. 그들 중 많은 사람이 자원봉사자로 나섰고, 시 위원회나 시 정부 간부가 있는가 하면 공안, 검찰원, 선전부서에서 근무하는 사람도 있었다. 어떤 사람은 일선에서 방역 작업을 하면서 양성 반응을 보인 사람과 직접 접촉하기도 했지만 한 명도 감염되지 않았다.

한 친척은 공급보증기업(중공 바이러스 때 식료품, 물품을 공급하는 업체)의



어갈 죄임을 직감했다! 파룬궁 수련생이 사람들에게 탈당을 권유하는 이유를 알 것 같았다. 탈퇴하지 않으면 그것을 따라 지옥에 가야 하지 않겠는가? 파룬궁 수련생이 정말로 사람을 구하고 있구나!

정의감을 느낀 슈진은 수련생 두 명을 마을 밖으로 호송하기로 했다. 문밖에 아무도 없자 슈진은 자기 집 차로 그들을 마을 밖 도로까지 데려다줬다.

한 달 후, 새해가 다가오자 차이샤와 동료는 선물을 사서 슈진에게 감사드리러 왔다. 그들은 특별히 마을 사람들에게 선(善)을 권하는 편지를 써서 새해 축하카드에 담아 장터에서 나눠주기도 했다. 마을 간부들과 사람들은 마침내 파룬궁 수련생들이 위험을 무릅쓰고 진상을 이야기하는 것은 고향 사람들의

평안을 위해서임을 깨달았다. 마을 간부는 다시는 파룬궁 박해에 가담하지 않겠다고 다짐했다. 당원이었던 슈진의 남편도 탈당에 흔쾌히 동의했다.

소원대로 손자를 보다

차이샤는 슈진에게 길상의 두 귀염둥이가 그려진 명후이(明慧) 세화를 선물했다. 슈진은 즐겁게 받아들리며 며느리 방 벽에 붙였다.

설을 쇠고 슈진은 며느리와 함께 병원에 가보려 했다. 며느리는 “어머님, 안가도 돼요. 임신한 것 같아요”라고 말했다. 슈진이는 이를 듣고는 기뻐하며 “파룬궁은 정말 신기해”라며 감탄했다.

10개월 후 며느리는 정말로 슈진에게 포동포동한 손자를 안겨드렸다. 

선량한 할머니가 의로움으로 복을 받다

글/ 핑판(平凡, 중국)

50대 중반의 슈진(秀瑾, 가명)의 아들과 딸은 이미 결혼해 자립했고 귀여운 손녀를 두고 있다. 슈진은 손자를 바랐으나 몇 년 동안 뜻을 이루지 못했다.

선한 마음으로 두 귀인을 구하다

2016년 겨울, 슈진이 손녀에게 솜옷을 만들어 주던 중 마을 주민이 간부 몇 명을 데리고 마당으로 들어섰다. 이들은 “두 명의 파룬궁 수련자를 본 적이 있나요?”라고 물었다. 슈진은 “못 봤어요”라고 말했다. 그들은 마당을 떠났으나 문밖에서 지키고 있었다.

이때 슈진은 집 마당 뒷벽 뒤에서 선 한 얼굴의 두 여자를 발견했다. 그중 한 명은 슈진에게 “아주머니, 우리는 파룬궁 수련자입니다. 당신 마을에 달력을 배포하러 왔는데 아까 그 몇 사람이 우리를 해치려고 합니다. 우리는 당신 집에 좀 있고 싶어요”라고 말했다.

슈진은 “그들이 아직 안 갔으니 들어가서 물 좀 드세요”라고 말했다. 두 사람은 슈진을 따라 방에 들어가며 말했다. “물은 안 마시겠으니 아주머니와

얘기를 나눴다”라고 말했다. 슈진은 다급하게 “당신들 얘기는 하지 마세요”라고 말했다. 슈진은 파룬궁을 연마하는 사람이 왜 자꾸 탈당을 권유하는지 이해하지 못했다.

마음의 매듭을 풀고 정의를 행하다

자리에 앉자 그중 한 여자[이하 차이샤(彩霞), 가명]가 “아주머니, 파룬궁이 불법(佛法)인 거 아세요?”라고 말했다. 슈진은 “알아요. 당신들은 진선인(真善忍)을 수련하지요. 저도 부처님을 믿어요”라고 말했다. 차이샤는 “승려에게 밥 한술 주어도 공덕이 무량하다고 합니다. 오늘 대법이 모욕을 당하고 있을 때, 당신이 대법제자를 도와주신 것도 공덕이 무량한 일입니다”라고 말했다.

이어 이들은 슈진에게 알려주었다. “천안문 분신자살’은 가짜이며 공산당 장쩌민 일당이 파룬궁에 죄를 뒤집어 씌운 것이고, 그들은 또 파룬궁 수련자의 생체에서 장기를 적출해 암암리에 팔고 있어요.”

슈진은 매우 놀랐고 이는 지옥에 들

사장이고, 아래로 직원 수백 명을 거느리고 있었다.

전염병 기간에 기업 주변의 크고 작은 가게에서 양성 환자가 나와서 가게들은 문을 닫거나 쉬었고, 직원들이 끌려가 격리됐다. 한 가게에서 양성 환자가 나오면 근처 아파트 단지 주민에게까지 불뚱이 튀어 모두 끌려가 격리를 당했다.

우리 지역에 감염자가 한 명도 없다고 정부에서 공식 선언을 할 때까지 수백 명 직원이 근무하는 이 기업에는 양성 반응을 보인 사람이 단 한 명도 없어서 전염병 기간에도 정상적으로 생산할 수 있었다.

우리 가족이 면역력이 강한 이유는 우한 바이러스가 폭발하기 훨씬 전에 내가 그들에게 ‘삼퇴’(중공 공산당·공청단·소선대 조직에서 탈퇴)를 해주었기 때문이다. 위에서 언급한 공급업체 사장을 비롯해 그 밑에 중층 간부 몇 명도 삼퇴를 해줬고, 일부 직원은 가족(파룬따파를 수련하는 가족)을 통해 ‘삼퇴’를 했다.

전염병이 지나가고 가족들이 한자리에 모였을 때, 가족들은 다들 전염병 상황이 그토록 엄중했는데도 가족 중에 양성 반응을 보인 사람이 한 명도 없었으니 정말 ‘삼퇴’가 평안을 담보하는 것이라고 감탄했다. 



[홍콩 투고] 홍콩 양 여사의 집은 중국과 홍콩 국경지대에 있다. 파룬궁(法輪功) 수련자인 양 여사는 전염병 기간 사람을 구하려는 절박한 심정으로 두려운 마음을 내려놓고 문밖에 ‘역병이 왔을 때 목숨을 지키는 좋은 방법, 파룬따파하오(法輪大法好—파룬따파는 좋습니다), 쩌싼런하오(真善忍好—진선인은 좋습니다)를 성심껏 염하세요’라는 큰 현수막을 걸었고 남편도 지지했다.

이때부터 그녀 마을 밖에서 신기하게 역사가 자라 역사 초원이 펼쳐졌고 환상적인 아름다운 경치에 많은 홍콩인의 발길이 이어졌다. 양 여사 문 앞에 걸어놓은 ‘목숨을 구하는 좋은 방법’도 관광명소가 됐다.

한 주민은 마을에서 한 사람도 감염되지 않아서 신기하다며 ‘파룬따파하오, 쩌싼런하오’ 이 9자 진언(九字真言)이 정말로 엄중한 전염병으로부터 그들을 지켜줬다고 말했다. 

지적장애 아들이 인재가 되다

글/ 후이진(惠珍)

내 아들은 어렸을 때 많은 시련을 겪었다. 예정 일보다 한 달 반 일찍 태어나고, 겨우 2.5kg이 조금 넘었다. 태어나 한 달간 눈 감고 뜨지 않았으며 입술이 검푸르고 울지도 웃지도 않아 어머니는 감히 목욕도 시켜주지 못했다.

한 살 반쯤 됐을 때, 병원에서 장중첩증(腸套疊)으로 오진해 수술까지 받아 계속되는 악몽에 시달렸다. 거의 달마다 열이 나고 기침해 링거를 열흘 넘게 맞아야 나왔다.

세 살이 될 때까지 말을 못 해 동료들은 지적장애 아들을 낳았다고 뒤에서 수군거렸고, 초등학교에 입학한 뒤 몸이 허약해 친구들에게 괴롭힘과 구타를 당하기 일쑤였다.



파룬궁을 수련한 후 나는 이 공법이 좋다는 걸 몸소 느꼈다. 좋은 사람이 되라고 가르치고 병을 제거하고 몸을 건강히 하는데 뚜렷한 효과가 있었다. 그래서 함께 수련하자고 아들에게 얘기했더니 그는 여름방학 때 수련하겠다고 했다. 아들이 방학 때 공원에서 공법을 배우고 며칠도 안 돼 광적인 박해가 시작됐고 그해 아들은 막 11살이었다.

나는 아들을 데리고 집에서 《전법륜(转法轮)》을 읽고 매일 연공했다. 아들은 더 이상 열도 나지 않고 기침도 하지 않아 더는 항생제를 맞을 필요가 없었다.

2000년 '10.1' 휴가 때, 나는 파룬궁의 억울함을 호소하기 위해 12살 되는 아들을 데리고 베이징에 갔다. 열차에서 내



자손에게 영향 줄 수 있다며 재판장이 명단서 삭제 간청

[중국 투고] M은 형사 법정 재판장이며 전부터 알고 지냈다. 어느 날, M이 갑자기 내게 부탁을 하나 했다. 그는 자신이 국외 파룬궁 박해자 추적명단에 들어가 있음을 안다며 자신의 이름을 삭제하게 도와달라고 간청했다. M은 파룬궁 수련자에게 형을 선고한 일은 '610'과 정법위에서 강제로 지시해 따른 것으로 그가 판결하지 않으면 자신이 판결받기 때문에 방법이 없었다고 했다. 현재 그는 자신이 추적명단에 포함된 것을 알고 자신과 후대 자손에게 끼칠 영향을 몹시 걱정하며 아울러 다시는 파룬궁을 박해하는 데 가담하지 않겠다고 약속했다.

M의 생각은 중국 관료사회에서 매우 보편적이다. 파룬궁은 진선인(真·善·忍)을 말하며 100여 개국에서 수련하는 세계적으로 환영받는 공법이다. 중국 현행 헌법에서도 공민에게 신앙의 자유가 있다고 규정했다. 중공의 파룬궁 탄압과 박해는 국제인권선언을 위배했고 중공 자신이 제정한 헌법도 위반했다.

국제적으로 박해자의 책임을 묻고 있기에 박해한 적 있는 중공 관료는 모두

퇴로를 찾고 있다.

공안, 검찰, 법원, 사법에 종사하는 직원이 중공의 잘못된 정책을 거부하려면 방법은 얼마든지 있다. 여기에서 몇 개 사례를 들겠다.

한 재판장은 파룬궁 수련생에게 억울한 판결을 내리지 않기 위해 자신을 퍽박한 상급과 '610' 직원에게 말했다. "누군가 먼저 서명하면 제가 판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결국 누구도 감히 책임을 감당하는 서명을 하지 않았다.

어느 법원의 형사 재판을 주관하는 부원장이 말했다. "나는 모든 파룬궁 사건에 대해 병보석 결정을 내려 시간을 끌었습니다."

'610'은 중공이 파룬궁을 박해하는 전문기구로 그중에도 명백한 사람이 있다. 어느 한 지역의 '610' 주임이 말했다. "나는 파룬궁에 대해 겉으로 박해하는 척했다. 파룬궁은 진선인(真·善·忍)을 수련하며 나쁜 일을 하지 않는다. 언젠가는 명예 회복을 할 것이다. 내가 오늘 박해에 참여해 나쁜 일을 한다면 명예 회복 날 자유롭지 못할 것이며 스스로 죄를 범할 뿐만 아니라 일가족 모두가 연루될 것이다."

하러 오는데 뜻밖에도 장응개가 일어나자 장응진의 목소리로 자초지종을 말했다.

원래 장응진의 전생은 역병 사자였고 장보옥은 그의 하인이었다. 역병을 뿌리는 과정에 실수로 죽지 말아야 할 두 사람이 죽는 바람에 인간 세상에 환생하는 처분을 받은 것이다. 장응진이 역병 중에 죽었으니 그해에 잘못을 저질러서 생긴 죄의 빚을 다 갚고 돌아간 것이다. 장보옥은 역병 사자의 하인이 환생했기에 역병 사자를 따라간 것이다.

중공 바이러스 재난을 어떻게 피할 것인가?

여기까지 말하면 지금 유행하는 중공 바이러스를 떠올리는 사람이 많을 것이다. 수련계의 사람들은 중공 바이러스 확산은 중공이 저지른 죄악과 관련이 있다고 본다.

중공의 역대 정치 운동은 8천만 중국인의 비정상적인 죽음을 초래했다. 특히 최근 20여 년간 중공이 파룬따파(佛法-불법)를 박해한 죄는 용서받을 수 없다. 중공의 모든 관리 사회는 욕심을 부리지 않는 관리가 없고, 여색을 좋아하고 이익을 최고로 삼으므로 인류 사회의 도덕적 해이를 더욱 부추기고 있다.

중공이 저지른 죄악은 이제 청산할 최후의 시기가 됐다. 군자는 위험한 벽 아래에 서 있지 않는다. 따라서 대역병으로부터 안전을 지키는 효과적인 방법을 살펴보자.

첫째, 전 세계 탈당센터 홈페이지(tuidang.org, 중국 민중은 봉쇄돌파 프로그램으로 접속)에서 삼퇴를 성명하고 가입했던 중국 공산당, 공청단, 소선대 조직을 탈퇴해 더 이상 중공 조직의 구성원이 아님을 신에게 알린다. 신불께서 중공을 청산할 때 삼퇴한 사람은 연루되지 않는다. 신께서는 사람의 마음을 보기에 가명, 아명, 실명으로 삼퇴해도 모두 유효하며 중공 조직에 말할 필요가 없다.

둘째, 최근 2년여의 중공 바이러스 사태 속에서 세계 각지에서는 성심성의껏 ‘파룬따파하오(法輪大法好-파룬따파는 좋습니다), 찐싼런하오(真善忍好-진선인은 좋습니다)’라는 ‘9자진언(九字真言)’을 염하고 재난을 헤쳐나가는 이들이 적지 않다. “마음에 정기가 있으면, 사악은 간섭하지 못한다.” 파룬따파는 고덕(高德)의 불가 대법으로, 사람들이 대법의 진언을 성심성의껏 읽으면 우주의 바른 에너지와 공명해 체내의 정기를 증강하고 바이러스를 막아준다. 전염병이 맹렬하지만 생명을 구하는 진언이 있다! 좋은 사람들이 평안하길 바란다!



린 뒤 곧 바로 천안문으로 향했고, 천안문 광장에서 관광객들에게 진상 전단지 나눠주면서 좋은 사람을 박해한 장쩌민의 범죄 행위를 폭로했다.

2000년 11월, 네 번째로 베이징에 갔을 때 수련생들과 함께 천안문 광장에서 ‘파룬따파하오(法輪大法好)’ 현수막을 펼쳤다. 그 후 나는 불법적으로 노동교양소에 갇혔다.

아들을 돌봐줄 사람이 없어 남편은 그를 기숙학교에 보냈다. 한번은 학교에



서 학생들에게 현수막에 파룬궁을 비방하는 서명을 하라고 했는데 아들은 서명하지 않았고 짝꿍에게도 하지 말라고 했다. 내가 1년 8개월의 불법 수감을 마치고 집에 돌아왔을 때 야위고 허약했던 아들은 뜻밖에 머리 하나 정도 키가 자랐으며 품행과 학업이 모두 우수했다. 나는 대법, 그리고 자비로운 사부님께서 아들을 보살펴주셨다는 걸 알았다.

고등학교에 다닐 때 아들은 이미 키가 184cm까지 자랐고, 성적이 우수하고 남을 진심으로 대하며 기꺼이 도와주었다. 부반장으로서 학급에서 정

제수 같이, 약 뿌리기, 전구 같이, 짐 나르기 등 힘든 일이나 더러운 일을 앞장서 했기에 선생님과 친구들이 모두 그를 좋아했다. 아들은 우수한 성적으로 현직 명문대에 입학했고, 베이징 명문대 대학원까지 마친 뒤 대기업에 입사해 사회에 유용한 인재가 됐다.



화재 속의 기적

글/ 웨취(月菊, 중국)

우리 집은 300여 평방미터의 일용품 가게를 운영하고 있는데 바로 옆에 우리 집과 벽 하나를 사이 두고 작은 음식점이 있었다.

음식점이 불에 타 뼈대만 남다

2014년 3월 어느 날, 식당 요리는 불을 붙이고 큰 국자로 기름을 두른 뒤 안채로 일하러 갔다. 음식점 직원이 불이 난 것을 발견했을 때는 이미 주방 전체가 불에 타고 있었다. 사람들은 놀라서 모두 집을 뛰쳐나오면서 “빨리 전화해요!” “불이야!”라고 소리 질렀다.

가게에서 돈을 받고 있던 나는 밖의 외침을 듣고 바로 뛰쳐나왔고 그때 음식점이 불에 타고 있는 것을 보았다. 나는 즉시 가게 안채로 달려가 남편에게 얼른 모든 스위치를 내리라고 소리쳤다. 그리고 다시 앞으로 달려가 보니 음식점 지붕에서 불길기 확확 솟구치고 있었다. 너무 놀라 얼굴이 하얗게

질렸고 온몸이 떨려 말이 나오지 않았다.

그 음식점과 우리 가게는 같이 지어 지붕이 잇닿아 있었고 지붕을 목재 대들보와 아스팔트 펠트지로 만들었으며 게다가 지붕 전체가 비닐로 덮여 있었다. 그때 음식점 사람이 “집안에 가스탱크가 있어요! 가스탱크!”라고 소리를 질렀다.

이때 가게는 이미 검은 연기가 자욱해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다. 나는 ‘망했어, 반평생을 고생했는데 이제 모든 것이 망했어’라고 생각했다. 그때 남편은 집안의 귀중품을 비닐봉지에 담으면서 나보고 빨리 나가라고 했다.

그때 내가 파룬따파를 수련한다는 생각이 번쩍 들었다. 그래서 황급히 집으로 달려가 《전법륜(转法轮)》과 대법서적 한 세트를 큰 여행 가방에 넣은 다음 뒷마당으로 달려가 안전한 곳에 두었다.

그리고 울면서 사부님께 청을 드렸



게 역병을 퍼뜨리지 못하도록 한 것이다.

다시 말하면 신명이 허락하지 않으면 현지에서 전염병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사람들이 보편적으로 신명을 경외하는 성실하고 선량한 곳에는 정기(正气)가 가득해 역신이 그곳에서 역병을 퍼뜨리지 못 하게 한다. 반대로 보편적으로 신을 믿지 않고 도덕을 지키지 않은 곳은 하늘의 뜻을 위배하는 일이 많으므로 역신이 그곳에 벌을 내림을 신명이 허락한다.

역병을 퍼뜨리는 사자가 실수하면 벌을 받는다

‘역병에는 눈이 있다’라는 다른 한 가지 의미는 바로 역병 사자가 역병을 퍼뜨릴 때 오차가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이런 예가 있다. 민국 ‘윤회집(輪廻集)’에는 장쑤(江蘇)성 장인(江陰)의 선강(申港)진에 계자(季子)묘가 있는데 춘추(春秋) 때 유명한 인물인 계자에게 제사를 지내는 곳이다. 절의 여분의 방은 정부에 징용돼 마을의 제2 초등학교를 부설했다고 기록돼 있다. 교장 이름은 장구고(張九皋)로 현지의 유명한 자선가이자 유가 군자신 인물이다.

민국 10여 년쯤 되었을 때, 정월 중에 장구고의 손자 장보옥(張葆玉)이 요절했고, 같은 해 7월 20일 그의 장남 장응진(張應珍)도 역병에 걸려 급사했다. 장구고는 평생 선행을 하다가 반년 만에 장남과 손자가 잇따라 세상을 뜨자 착한 일을 하면 반드시 보상이 있다는 하늘의 뜻을 의심하기 시작했다.

장남이 세상을 떠난 지 사흘째인 오전 9시, 장구고의 차남 장응개(張應介)가 장을 보려고 집을 나서자 갑자기 돌아가신 형이 조카 장보옥을 데리고 그를 맞이하는 모습이 보였다. 장응개가 “형님”이라고 외치자마자 그가 길바닥에 쓰러졌다. 이웃들이 보고 모두 부축

‘역병에는 눈이 있다’와 ‘역병을 피하는 좋은 방법’

글/ 연잉후이(彦映輝)

중국 고대인들은 단오에 향낭을 지니고 액막이로 역병을 물리치는 풍습이 있는데 어떤 지역에서는 오역사자(五瘟使者)에게 제사를 지냈다. 오역사자란 다섯 명의 역신[瘟神]을 말하는데 그 직책은 인간 세상에 역병을 퍼뜨리는 것이다. 민간에는 ‘역병에는 눈이 있다’라는 말이 있다. 바로 역병이 어디서 발생하는지, 누가 감염될 것인지는 암암리에 선택돼 있다는 뜻이다.

크게 다른 절강(浙江)의 서부와 동부

송나라의 ‘이견지(夷堅志)’는 남송 시기, 무원(婺源) 현 석전(石田) 마을 왕(汪) 씨의 하인 왕십오(王十五)가 갑자기 혼절했다가 8일 만에 기적으로 살아나 혼수상태에 경험한 일을 기재했다.

왕십오는 말을 갈 때 서쪽에서 도복을 입은 10여 명이 궤짝, 작은 상자와 부채를 갖고 오는 것을 봤다. 그들은 왕십오에게 그 상자를 지게하고 그들과 함께 길을 재촉했다.

현성의 오후묘(五侯廟)에 도착한 후, 그들은 후작(侯爵)에게 무원에서 전염병을 퍼뜨리겠다고 하자 후작은 허락하지 않고 빨리 떠나라고 명령했다. 그들은 악비 묘에 와서도 마찬가지로 떠나라는 호령을 받았다. 휴녕(休寧) 현, 휘주(徽州)에 와서 현지의神明묘(神明廟)를 찾아갔는데神明들은 역병을 퍼뜨리는 것을 허락하지 않았다.

이후 그들이 선주(宣州)에 도착해大神祠(大神祠) 입구에 들어서자 누군가 마중을 나왔다. 이들은 현지神明에게 역병을 퍼뜨릴 수 있다는 허락을 받고 먼저 북문의 맹(孟) 씨 낭중(郎中)의 집부터 퍼뜨렸다. 맹 씨 집에서 그들은 궤짝에서 각자 무기를 꺼내 부채질하거나 공격하거나 하면 적중된 사람은 바로 죽었다.

그해 절강(浙江) 서부에서는 역병에 걸린 사람이 부지기수지만 동부 사람들은 무사했다. 절강 동부 사람들은 민품이 선하며 평소神明을 공경하자 현지 성황신이나 기타神明이 역신들에

다. “사부님, 제발 가스탱크가 터지지 않게 도와주세요! 절대 큰불이 나지 않게 도와주세요! 불이 넘어오기만 하면 가게가 모두 타버립니다.”

불이 20분 정도 탔을 때 소방차가 도착했고 소방차 두 대가 동시에 30분 넘게 불을 꺼서야 화재가 진압됐다.

온통 아수라장이 된 음식점은 지붕이 없이 하늘이 보일 정도로 뼈대만 남았다. 집안 물건도 다 타버려 망가진 냉장고 한 대와 액화석유 가스탱크 6개만 남아 있었고, 액화가스 탱크 2개는 밖으로 기체를 내뿜고 있었다.

벽 하나를 사이 둔 가게가 무사하다

하지만 식당과 벽 하나를 사이 둔 우리 가게는 무사했다! 가게 안의 40~50만 위안의 물품들은 전혀 손실이 없었다.

가게에 와 본 이웃과 친구들은 어디도 타지 않은 것을 보고는 흥분해서 말했다. “정말 다행이네요. 이렇게 큰불에 하나도 타지 않았다니 너무 행운이고 복이 많네요!”

한 이웃 아주머니는 내게 다가와 말했다. “당신이 덕을 쌓고 선을 행하는 좋은 사람이라 복을 받은 겁니다!” 내 눈에서는 자비로우신 사부님에 대한 감사의 눈물이 하염없이 흘러내렸다.

내가 파룬궁 수련자인 것을 아는 이웃 아주머니는 “예전에도 불이 난 것을 본 적이 있으나 이렇게 큰불은 처음이에요! 정말 대단합니다. 집에 앉아서 불을 제압하다니 정말 탄복합니다!”라고 말했다.

나는 말했다. “제가 어찌 큰불을 제압할 능력이 있겠습니까? 우리 집을 지켜 준 건 제 사부님이십니다!”

맺음말

많은 사람이 일생에 한 번쯤은 이런 기적을 경험하거나 목격했을 것이고 언론도 이런 사례를 많이 보도했다.

예를 들어 2011년 중국 전통 설 기간에 선양 만신빌딩에서 큰 화재가 발생해 건물 두 채가 거의 모두 타버렸지만 건물 안의 목조 불상 하나만은 온전하게 남아 있었다. 2005년 동남아 쓰나미 때 부서진 기와 위에 우뚝 솟은 거센 파도 속에서도 쓰러지지 않은 불상이 곳곳에서 발견됐다. 이런 기적은 과학으로 설명할 수 없다.

하지만 신불(神佛)을 믿는 사람들은 그 속에서 신불의 실제 존재, 신불의 자비와 은혜를 느끼고 천지神明을 더욱 경외한다. 또 선악의 인과관계를 굳게 믿고 자발적으로 덕을 쌓아 선을 행하면서 신불에게 보호를 받고 있다. 



죽음의 신도 비껴가다

글/ 뤼산(若善)

나는 태어날 때 밧줄이 목에 감겨 죽을 뻔했다. 의사의 응급처치로 살아났으나 편마비 장애가 생겼다. 오른손 장애에 왼손도 원활하지 않았고 두 다리는 거의 걸을 수 없었으며 말하기도 어려웠다. 다행히 정신과 지능에는 문제없어 대학까지 졸업할 수 있었다.

두 가지 암 진단을 받다

대학 다닐 때 1년 이상 머리가 아팠다. 매일 진통제를 먹었으나 두통은 갈수록 더 심해졌다. 얼굴 반쪽이 자주 저리고 시력과 청력이 많이 떨어져 뇌가 가끔 순간적으로 의식을 잃기도 했다. 머리가 깨질 것 같은 고통으로 종종 교실에서 자습하다 침실로 돌아가 휴식해야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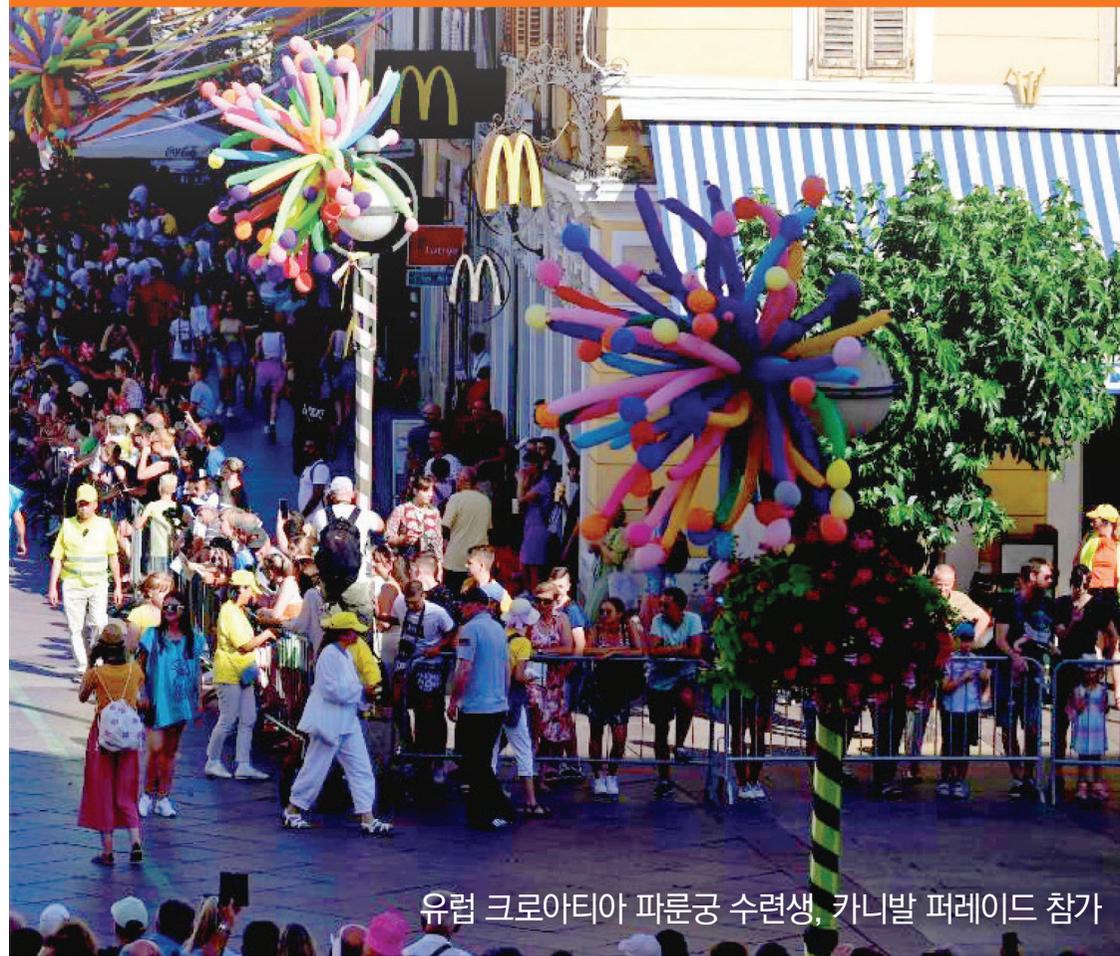
1997년 5월 말, 대학 졸업을 앞두고 '생활과 건강' 잡지에 실린 글에서 비인두암의 말기 증상이 당시 내 증상과 똑 같음을 알았다.

충격을 받은 나는 즉시 어머니께 편지로 알려드렸다. "어머니, 제가 비인두암에 걸린 것 같습니다!" 충격을 받으신 어머니는 차를 타고 급히 달려와 날 시급 병원에 데려가셨다.

CT 촬영을 두 번 거친 후 전문가들은 '악성 뇌종양 말기'인데 두개골이 모두 암세포에 침식됐다고 했다. 당시 두개골 안에 퍼져 있던 악성 종양이 청각 신경과 시신경을 압박하고 있었다.

이비인후과에서는 두 차례 생체조직 검사 끝에 말기 비인두암 판정을 받았고 의사는 기껏해야 3개월 정도 더 살 수 있다고 단언했다. 생명이 23살 되던 해에 끝날 것 같았다.

여름 활동 스케치



유럽 크로아티아 파룬궁 수련생, 카니발 퍼레이드 참가



고 있는 시민



터키, 파룬궁을 배우고 있는 사람들

파룬따파 세계 홍전(弘傳)



유전병에서 벗어나다

머리에 퍼져 있는 악성 종양은 수술로 제거할 수 없어 방사선 치료를 받았다. 방사선 치료를 하면서 코피가 났는데 어떤 때는 멈추지 않아서 하는 수 없이 화장실에 쪼그리고 앉아 그냥 흐르도록 내버려 뒀다.

방사선에 의한 목 피부 손상으로 목 피부도 헐었다. 입도 짓무르기 시작했고 음식을 먹는 것은 마치 형벌을 받듯 고통스러웠다. 어머니가 억지로 밥을 먹여서 먹었고 정말 굶어 죽고 싶었다.

방사선 치료를 마치고 귀가한 지 얼마 되지 않아 목에 달걀만 한 덩어리가 생겼다. 비인두암으로 돌아가신 아버지가 떠올라 더 이상 방사선 치료도, 화학요법도 원하지 않았다. 두 가지 치료로 인한 강력한 부작용은 죽음을 앞당길 뿐이었다. 나는 고통스럽게 죽고 싶지 않았다.

나는 감히 어머니 앞에서 눈물을 흘리지 못했다. 방사선 치료 중 하루는 머리가 아파서 울었던 기억이 난다. 어머니는 울음을 터뜨린 날 보시며 애써 위로하면서도 굶은 눈물을 참지 못하셨다. 어머니가 이렇게 슬퍼하는 걸 본 나는 울음을 그쳤다.

목에 종기가 생기자 얼굴도 급속히 부어 두 배 가까이 커졌고 눈도 가늘어

졌다.

날 보고 너무 슬픈 할머니는 눈물이 그치지 않으셨다. 큰아들, 즉 내 아버지가 죽기 전에 이런 모습이었기 때문이다. 부모가 자식을 먼저 떠나보내는 장면을 재연하는 것 같았다. 어머니와 할머니는 내가 세상을 떠나면 어떤 옷을 입혀야 할지 몰래 의논하셨다.

절망 속에서 대법이 구해준다

어머니는 수년간 건강이 좋지 않으셨다. 심한 심장병으로 심박동이 느려(분당 심장 박동은 겨우 40여 번임) ‘속효 구심환’을 몸에 지니고 다니셨다.

그 외도 비염, 결장 궤양, 담낭염, 오심견, 빈혈, 두통, 피부병, 요통, 좌골신경통 등 질병에 시달렸는데 그 고통은 말로 표현할 수 없었다. 어머니는 각종 기공과 태극권을 배우며 몸을 단련해 봤지만 아무 소용이 없었다.

내가 방사선 치료를 시작해 얼마 지나지 않아 어머니는 우연한 기회에 파룬궁(法輪功)을 수련하기 시작하셨다. 어머니는 혈색이 좋아지고 원기가 왕성해지면서 더는 의기소침하지 않으셨다.

어머니의 변화를 본 나는 정말 기뻐했다. 어머니는 나에게 《전법륜》을 한번 보라고 권유하셨다. 나는 당시 열심히 책을 읽지 않았다. 파룬궁을 일반적인

기공으로 여긴 나는 몸도 느슨히 할 수 없어서 파룬따파(法輪大法)를 수련할 수 없다고 생각했다. 여전히 기계적으로 방사선 치료를 받으며 무감각하게 죽음을 기다리고 있었다.

방사선 치료가 끝난 지 얼마 안 돼 나는 거의 죽을 것 같았다. 1997년 하반기에 어머니는 이 책은 어떻게 마음을 닦고 선을 향하는 좋은 사람으로 되며 어떻게 명예와 이익을 담담히 보고 사심 없이 다른 사람을 위함을 가르치는 책이라고 하시면서, 다시 나에게 파룬궁의 주요 저서 《전법륜》을 읽어보라고 했다.

그 후 어머니는 또 파룬궁 수련생들이 쓴 수련 체험 모음집 두 권을 보여주셨는데 그 이야기에 깊이 감동했다. 파룬궁은 많은 불치병 환자를 다시 태어나게 했을 뿐만 아니라 사람의 사상과 마음을 빠르게 정화하고 향상한다는 점에서 감탄을 금할 수 없었다.

모음집을 다 보고 나니 마음이 움직였다. 그 순간 온몸에 뜨거운 열기가 흐

르고 있음을 느꼈다. 1998년 2월 어느 날, 나는 어머니와 함께 아침 연공을 시작했고 매일 함께 《전법륜》을 읽었다. 몸과 마음이 끝없는 불법(佛法) 속에서 빠르게 수혜를 입었다. 사실 《전법륜》을 처음 봤을 때 사부님께서는 이미 날 책임지셨는데 목 부위에 있던 종양이 그때 가뭇없이 사라졌다.



나위도 없다.

원리의 든든한 후원금이 남편 회사 재정을 뒷받침해 주었지만 계속해서 공백을 메워줘도 남편 회사는 상황이 호전되지 않았다.

‘돈은 가난한 사람의 팔자이고, 부자의 쓸개’라는 말이 있다. 원리는 ‘이대로 가다가는 밑 빠진 독 아닌가?’라며 당황했다. 원리는 남편에게 돈을 갚으라고 요구했고 남편은 이전의 빚을 갚고 또다시 돈을 빌렸고, 재삼 끊임없이 돈을 빌리고 또 갚고 다시 빌렸다. 위기를 느낀 원리는 남편에게 돈을 갚고 회사를 닫으라고, 직업을 바꾸라고 강요했는데 이렇게 부부는 반복해 싸우게 됐다.

원리는 친정 식구들에게 알리지도, 친한 친구에게 털어놓지도 못하는 마음속 괴로움과 억울함, 원한 등을 언어폭력으로 바꿔 남편에게 발산했다. 부부 싸움이 심할 땐 이혼할 뻔했다.

시부모님은 이런 사정을 알면서도 어쩔 수 없어 걱정만 할 뿐 묵묵히 하느님께 위기를 모면해 달라고 빌 수밖에 없었다.

진선인을 수련하는 가운데 원리는 이것은 ‘명리정’의 시련임을 깨달았다. 그녀는 먼저 금전적 손실을 두려워하는 걱정과 불만을 털어놓고 남편에게 자신의 깨달음을 간곡하게 이야기했다.

아직 수련하지 않았으나 줄곧 원리의

파룬따파 수련을 지지해온 남편은 원리의 체득과 제시된 계획을 인정했고, 부부는 한마음으로 어떠한 시련과 곤경도 직면하기로 다짐했다. 신기하게도 그 이후 ‘고생 끝에 낙이 온다’고 상황이 달라졌다.

마음에 따라 변하는 환경

남편의 컴퓨터 회사가 안정적으로 성장하기 시작하자 창업 아이디어가 풍부했던 그가 개척한 다른 사업도 순풍에 돛을 단 듯 확장되면서 주류 인맥도 갈수록 많아지고 계층도 갈수록 높아졌다.

어려서부터 음악반에서 재능과 기예 훈련을 받은 원리는 문화예술계 주류들이 눈높이가 높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 자신의 조건을 참작해 음악 강좌를 지속적으로 개최해 선원과 진상을 널리 알리기 위한 토대로 삼기로 결심했다. 게다가 남편의 인맥도 사회 주류와 인연을 맺는 계기가 될 수 있었다. 남편은 흔쾌히 지지했다.

원리는 재력이 있고, 남편은 인맥이 있어 서로 보완할 수 있는 최적의 조합이었다. 몇 차례 활동에서 명성과 입소문을 얻으면서 원리와 남편은 각자의 길을 헤쳐나갔으나 서로 긴밀하게 연결돼 잘 어울렸다. 마음이 바뀌면 비가 그치고 하늘이 맑아진다.

하다며 물었다. “어찌하여 부인이 달라졌나요?” “오! 파룬궁을 수련해서입니다.”

시택과 대립에서 화목한 가정으로

원리와 시택의 관계도 180도로 달라졌다. 원리의 시택은 장사하는 시골 사람이라 책도 얼마 읽지 못하고 표현도 서툴다 보니 말투나 태도가 좋지 않았다. 자신도 모르게 시택에 대한 깔보는 마음을 갖게 된 원리는 사소한 일에도 심각하게 대립했다.

예를 들어 시어머니가 수저를 그렇게 씻어야 깨끗하다고 말하면 원리는 바로 발끈했다. “아마(阿嬷, 할머니를 가리킴)가 이렇게 씻으라고 가르쳐줬어요!” 가정환경과 생활 조건은 원리가 자란 우월한 환경과는 그야말로 하늘과 땅 차이였다. 시택에 가는 것이 매우 두려웠던 그녀는 구실을 찾아 피할 수 있으면 피했고 심지어는 한동안 가지 않았다.

파룬따파를 수련한 후, 원리는 진선인의 표준으로 자신을 단속하고 상대방 입장에 서서 남을 너그럽게 대함을 배웠다. 옆으로 보면 긴 능선으로 뻗어 있지만 측면에서 보면 깎아지른 봉우리이듯, 각도를 바꾸어 생각하자 시부모님의 소박하고 돈독한 모습을 본 원리는 자신의 이전 잘못을 깨달아 서로

의 관계가 나날이 평온해졌다.

지금은 바쁜 와중에도 명절이나 평일에 기회만 있으면 기꺼이 시택으로 가서 두 노인과 함께하며 시부모님이 좋아하면 최선을 다해 보살펴드렸다. 시어머니는 원리를 매우 좋아하신다. 때때로 원리가 정말 시간을 낼 수 없어 못 가면 “원리는 왜 안 오는 거냐?”라고 물어보시는 시어머니의 눈빛에는 배려와 기대가 가득했다.

언젠가 시어머니가 반바지에 앙상한 종아리를 드러내자 원리는 마음이 아팠다. 안타까움과 송구함이 가득 찬 원리는 시어머니에게 “제가 예전에 철이 없이 제멋대로 많은 일을 잘못했어요. 저와 커옌이 걱정을 끼쳐 죄송해요!”라고 사죄할 기회를 얻었다. 수줍은 시어머니는 “괜찮아”라고 말씀하셨다.

원리와 남편은 왜 시부모님을 걱정하게 했을까?

집착의 관문을 뚫고 명(名), 리(利), 정(情)을 뛰어넘다

성격이 온화하고 총명한 원리의 남편은 회사도 매우 활기차게 경영한다. 그러나 어찌 된 일인지 재복의 신은 늘 그와 스쳐 지나가면서 한 번도 돌봐주지 않았다. 회사의 반복적인 적자는 매달 몇십만 위안의 인건비만으로도 골머리를 앓는 데 기타 비용 지출은 말할

연공에 참가한 지 며칠 후 어느 날 밤, 비몽사몽 상태에서 큰 손이 머리에 들어가 무언가를 잡아내고 있음을 느꼈다. 그 순간 나는 자비로운 사부님께서 머리를 청리하셨음을 알았다. 이때부터 나는 새 생명을 얻었다!

파룬따파를 수련한 지 1년여 만에 나는 의외로 좋은 직장을 얻었다. 파룬따파 수련으로 지혜가 열려 일을 한 후 짧은 시간 내에 그다지 민첩하지 않은 왼손으로 빠르게 컴퓨터 사용법을 배웠을 뿐만 아니라 실제 업무에서 자유자재로 운용할 수 있었다.

자기를 수련하며 스스로 단속하는 좋은 사람이 되다

사부님께서서는 대법제자들에게 어디에서나 자신을 엄격히 요구하는 좋은 사람이 되라고 하셨다. 나는 일에 참여한 후 자신을 장애인으로 여기지 않았다. 추위와 더위, 소나기에도 상관없이 매일 제때 출퇴근하고 지각하거나 조퇴한 적이 없으며 개인적인 일로 인한 업무 지연도 매우 적었다.

2007년 말, 교육 주관 부문에서 어려움을 겪는 교직원을 위로하며 지원금을 줬는데 신임 교장은 나를 1순위로 뽑았다. 1년간 학교는 어려움을 겪는 교직원들을 금전적으로 지원했다. 나는 교장

의 호의를 완곡히 사절했다. “저는 가족 부담이 별로 없습니다. 저보다 더 도움이 필요한 선생님께 기회와 자리를 양보하고 싶습니다.” 교장은 놀라며 감탄했다.

직함 승진은 직장인들의 큰 관심사였다. 나는 지금까지 20여 년간 직장생활을 하고 있으나 직함은 시종 변하지 않았고 초급 직함의 월급을 받으면서 조금도 불평한 적이 없고 시종 맡은 바 책임을 다하며 일했다.

2012년 교장이 인사국을 찾아가 내 직함 승진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요청했지만 허사였다. 교장이 전화를 걸어 ‘교사’ 자격증을 만들어야 하지 않느냐고 귀띔했다. ‘교사’ 자격증을 만드는 것은 조작이므로 나는 거침없이 거절함과 아울러 교장의 관심에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교장은 감탄을 금치 못하며 내게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당신이 업무에 최선을 다하는 책임감 있는 자질을 우리 선생님들이 반만 갖춘다면 교장 노릇하기가 쉬울 겁니다.”

내가 23살에 죽음의 신과 스쳐 지나고 진선인(真·善·忍)에 동화하는 행복한 생명이 될 수 있던 것은 자비롭고 위대하신 리홍쯔(李洪志) 사부님께서 새로운 삶을 주셨기 때문이다. 사부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가정의 평화를 되찾은 원리와 남편 커옌(科言)

4년간 수련을 거쳐 여러 난치병이 완치되다

글/ 트란 민 찌우(베트남 번역문)

내 이름은 트란 민 찌우(Tran Minh Chieu)이다. 올해 72세이고 베트남 하노이에 살고 있다. 2018년 8월부터 파룬따파[法輪大法, 파룬궁(法輪功)이라고도 함]를 수련하기 시작했다. 근 4년간의 수련을 거쳐 여러 난치병이 완치됐다. 이 기적은 나의 상상을 뛰어넘었다.

대학 졸업 후 국가시험에 통과해 감사 공직에 오른 원리는 과오를 예리하게 바로잡아 보고하고, 해당 기관에 결점을 개선하도록 지시하는 직책을 지냈다. 시정 건수는 실적과 직결돼 실적과 승진에 영향을 미친다.

감사 업무의 특성으로 원리는 부정적인 사고와 관리 마인드를 키웠고 높은 곳에 서서 사람을 내려다보는 결점을 습관화했다. 과중한 업무 부담으로 실적 경쟁 압력이 큰 데다 퇴근 후 가정과 자식들을 챙기느라 하루하루 바빴다.

직장 상사가 그에게 파룬궁(法輪功)을 추천하며 연공을 가르쳐줬다. 원리는 파룬따파(法輪大法) 9일 학습반에 참가한 후 자신이 원하는 대법임을 무의식적으로 깨닫고 대법을 수련하기로

결심했다.

하지만 바쁜 생활과 시대과의 불화가 심각한 대립으로 이어지고 남편 회사 문제로 마음과 힘을 소모해, 원리에게 법공부와 연공은 그다지 중요하지 않아 수련은 하는 듯 마는 듯 하는 상태였다. 그러다가 몸에 문제가 생겨 병업으로 생사의 고비를 넘기는 순간, 마치 꿈에서 깨어난 것 같은 각오가 생겼다.

원리는 안으로 찾아 자신을 돌아보게 된 그때야 비로소 진정한 수련으로 돌아와 착실히 수련하며 정진했다. 진선인의 단련 속에서 내적, 외적 환경이 마치 봄비가 부드럽게 만물을 적시는 듯 변했다. 사람을 대함에 냉담하고 교만하던 태도가 겸손하고 따뜻함으로 바뀌었고 다른 사람을 먼저 챙겼다. 남편의 친구는 혀를 두르며 놀랍고도 이상

진선인(眞·善·忍)을 깨달아 고생 끝에 낙이 오다

글/ 명후이 기자 정위언(鄭語鸞) 대만 취재 보도

원래 애정이 깊던 원리(雯麗)와 남편은 안타깝게도 늘 어떤 관념의 차이와 돈 문제로 다툼이 일어났고, 점점 부부 사이가 틀어져 이혼 직전까지 갔다. 그러나 다행히 파룬따파(法輪大法)를 수련하면서 진선인(眞·善·忍) 원리에 따라 마음을 닦아 ‘금전’ 속박에서 벗어나 파탄 위기에 있던 가족을 구했다. 지금은 부부가 힘을 합쳐 많은 사람에게 혜택을 주고 있다.

원리는 학자 가문 출신이라 아버지가 그녀에게 풍족한 재산을 남겨줬고 게다가 괜찮은 직업과 안정된 월급이 있었다. 미국에서 유학하고 귀국한 남편은 직장에서 부지런하고 성실하게 책임지는 우수한 인재로서 남들은 두 사람의 결혼을 부러워했다. 이렇게 훌륭한 커플인데 어찌 말다툼이 그치지 않아 이혼 직전까지 갔을까? 그들은 어떻게 그 티격태격하던 나날들을 이겨왔을까? 원리는 자신의 경험을 기자와 공

유했다.

모친상으로 알게 된 슬픔

부유한 집안에서 태어난 원리는 어른들의 ‘금지옥엽’ 같은 보호 속에서 자랐다. 그런데 하늘에서 오는 뜻하지 않은 풍운은 어찌할 수 없었다. 17세 되던 해에 어머니를 여읜 원리는 인생에 큰 빈자리를 느꼈다.

한동안 매번 어머니 날이 오면 원리는 울음을 그치지 못했다. ‘젊어서 근심 걱정 모르던’ 원리는 생명은 어디서 왔고 또 어디로 가는가에 대한 의문이 생기면서 인생이 무엇을 위해 왔는지에 대한 답을 찾기 시작했다. 불교 밀종(密宗)을 잠시 접했으나 이내 흐지부지 그만뒀다.

꿈에서 깨어난 듯한 깨달음

질병에 시달리다

1975년 이전에 나는 군인이었는데 전쟁터에서 부상을 입고 화학무기의 피해를 보았다. 나이가 들수록 더 많은 질병에 걸렸는데 당뇨병, 이상 혈압, 관절통, 담석, 위암, 전정기능 장애, 인후통 등 고칠 수 없는 질병으로 고통받았다.

나는 많은 큰 병원과 외국 병원에서 검사와 치료를 받았으며 경혈 마사지와 침구, 그리고 다양한 동양의학 치료법도 시도해봤다. 모든 치료는 허사였고 질병은 계속 날 괴롭혔다. 2015년 10월 위장 수술을 받으며 5분의 4를 절제했다.

2017년 2월, 34살 된 아들이 병으로 세상을 떠났다. 자식을 먼저 떠나보내는 이 엄청난 정신적 충격은 날 견딜 수 없게 했고 질병도 점점 심해져 몸부터 정신까지 망가졌다. 체중이 15kg 빠졌고 사람은 장작처럼 야위어 안색이 창백했다. 인생이 얼마 남지 않았다고 생각한 나는 죽을 각오를 하고 있었다.

신체 단련으로부터 진심으로 수련하다

2017년 8월 15일, 사촌 누나가 전화로 파룬궁을 수련하면 내 몸에 매우 큰

좋은 점이 있을 거라고 말했다. 조카가 《전법륜(轉法輪)》(파룬궁의 주요 저서, 40여 종의 언어로 번역됐음)을 선물했고 또 파룬궁의 5가지 공법을 무료로 배울 수 있는 자료도 찾아줬다. 일주일 만에 공법 동작을 기억했고 5가지 공법을 열심히 연마할 수 있었다.

1년 가까이 나는 《전법륜》을 세 번만 읽었을 뿐 사부님께서 책에서 말씀하신 법리를 이해하지 못했다. 나는 파룬궁을 단지 몸만 단련하는 줄 알았지 대법수련인 줄 몰랐다.

2018년 5월에야 우리 지역에 있는 파룬궁 연공장을 찾았다. 그때부터 적극적으로 단체 법공부와 연공에 참여했다. 단지 한 달 만에 몸에서 나타난 큰 변화를 느꼈다. 잘 먹고 잘 자고 기분이 상쾌해지고 몸이 가벼워지면서 자신의 병에 대해 별로 생각하지 않았다.

상상을 뛰어넘는 파룬궁 수련의 기적

다음은 내가 파룬궁을 수련한 후의 신기한 변화들이다.

우선 수련 전 혈당 수치가 17mmol/L(공복 정상은 3.9~6.1)까지 올라가기도 했다. 의사들은 당뇨병을 치료할 수 있는 약은 없다고 말한다. 약을 먹는 것은 혈당 수치를 안정시키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을 뿐 평생에 약과 함께 해야 한다. 하지만 수련 후 당뇨병 약을 먹지 않은 지 거의 4년이 됐다. 지금 혈당 수치는 건강한 사람의 상태로 매우 안정적이다.

둘째, 위 수술을 받은 뒤부터 7년 가까이 위장병이 날 괴롭혔다. 지금 화학 실험 결과 내 위장에는 이미 K세포(킬러 세포: 위억제폴리펩티드를 합성하는 살해 세포)가 없음을 알 수 있다.

셋째, 수련 전 혈압이 75/55까지 낮아 응급 진료를 받아야 할 상태였다. 여러 해 동안 생명을 구하는 기공을 찾았으나 아무런 결과가 없었다. 대법을 수련한 후 혈압 수치는 115/75로 노인들에게 매우 이상적이다. 나는 거의 4년 간 약을 먹지 않았다.

넷째, 예전에 있던 담석은 흙모래 모양이었다. 의사는 염증이 생겨서 견딜 수 없을 정도로 아프지 않으면 건드리지 말라고 건의했다. 의사는 또 수술하고 쓸개를 절제해야 한다고 했는데 이 병은 치료할 방법이 없었다. 하지만 지금은 초음파 결과 쓸개가 정상이고 담즙이 투명하게 분비돼 더 이상 결석이 보이지 않는다.

파룬궁을 수련한 후 나는 술도 약도 먹지 않았는데 여러 불치병이 사라졌다.

파룬궁을 수련하기 전에는 매일 많은

약과 특별한 음식을 먹는 데 드는 비용은 한 달에 수천만 동(베트남 화폐 단위, 1000만 동은 약 2900위안) 정도 든다.

아내는 처음엔 믿지 않았으나 내 몸과 마음이 많이 좋아진 것을 보고 약을 먹지 않아도 걱정하지 않았다. 그래서 아내도 2019년에 파룬따파 수련을 시작했다. 우리 부부는 매일 열심히 법공부와 연공을 하고 있다.

근 4년간의 수련을 거쳐 나와 아내는 각종 난치병, 불치병이 다 나아 평소에도 주사를 맞지 않고 약을 먹지 않는다. 이 기적은 상상을 초월하며 날 구해주신 사부님 은혜에 감사드린다.

진선인(真·善·忍)에 열심히 동화하다

나는 늘 가족에게 대법 사부님께서 다시 만들어 주신 새로운 삶이라고 말한다.

내 경험을 통해 파룬따파는 정말 신기하며 우리에게 건강을 주고 도덕 수준을 향상하며 마음에 평안을, 가정에 행복을 주는 것임을 여러분께 알리고 싶다.

아내와 나는 약 60명의 친척과 옛 동료들에게 대법을 수련해 수혜 입은 경험을 공유하고 그들에게 파룬따파 자

료를 선물하며 진상을 알렸다. 그들 중 20명이 대법 수련에 들어왔고 확고하게 정진하고 있다.

파룬따파는 우주의 본원과 인간을 구성하는 법칙을 논술했는바 진선인(真·善·忍) 세 글자에 담겨있다.

법공부가 깊어지면서 수련의 관건은 자신의 심성을 높이는 것이며, 대법제자로서 항상 진선인의 원칙으로 자신을 가능하여 반본귀진(返本归真)해 자신의 진정한 집으로 돌아가야 함을 깨달았다.



1억 명의 운명을 바꾼 기이한 책

《전법륜(转法輪)》은 파룬궁의 주요 저서이며 백여 개 나라와 지역에서 여러 인종의 파룬궁 수련자가 매일 필독하는 경전이다. 《전법륜》은 예로부터 인류가 끊임없이 추구했으나 도저히 이해되지 않던 우주, 인생의 미혹을 풀어줬고, 전 세계 1억 명이 넘는 사람이 심신에서 수혜를 입고 도덕성이 향상됐다.

1996년(중공이 파룬궁을 박해하기 전) 《전법륜》은 여러 차례 《베이징청년보》, 《베이징만보》, 《베이징일보》에서 베스트셀러로 선정됐다.

2004년 12월 《전법륜》은 호주 방송국 경선에서 호주에서 가장 환영받는 100권의 서적 순위 중 제14위를 차지했다. 가장 환영받는 서적 중 유일하게 동양에서 온 불법(佛法) 수련 서적이었다.

오늘날 《전법륜》은 40여 종 언어로 번역돼 세계 각지에서 공개 출판 발행되고 있으며 역사상 외국어로 가장 많이 번역된 중국어 서책이다.